

# 연금 시장 리뷰

## 경제현안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이슈 : 금융위기 이후 산업별 일자리 창출력 변화

## 퇴직연금

- 동향 :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 中 요약
- 이슈 : 복합금융상품도 알자
- 퇴직연금통계 : 2012년 9월말

## 세심록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2012년 3/4분기 경제성장률 1.5% 기록

- 한국은행이 지난 6일 발표한 국내총생산 잠정치에 따르면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5%로 속보치(1.6%)에 비해 -0.1%p 하향 조정
  - 국내 총생산 부진: 가계부채 부담, 고용 문제 등으로 민간소비가 부진하고 반도체,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감소하여 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5% 증가에 그침
  - 국민총소득은 증가, 저축률은 하락: 실질 국민총소득은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반면, 총저축률은 전년동기대비 -1.1%p 하락한 30.1%를 기록
- 4/4분기 국내총생산은 내구재 소비 증가와 석유제품 등 수출 회복세로 3/4분기 보다는 개선될 전망이지만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지속 등으로 반등의 힘은 약할 것으로 보임

○ 금융 동향: 국내 금융시장은 상승세

- 12월 19일 대선에 대한 기대감과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감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1월 26일 2.84%에서 12월 11일 현재 2.83%로 보합
  -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지속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자금 유입이 계속되면서 11월 26일 1,085.5원에서 12월 11일 현재 1,076.0원으로 9.5원 하락
  - 코스피 지수는 대선에 대한 기대감과 외국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세 등으로 11월 26일 1,911.3에서 12월 11일 1,964.6로 53.3p 상승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연간	2/4	3/4	4/4	1/4	2/4	3/4	11월26일	12월11일
실물 지표	GDP성장률(%)	3.4	3.4	3.4	3.4	2.8	2.4	1.5	-	-
	산업생산(%)	7.2	5.3	5.3	5.3	4.2	1.5	0.3	-0.8	-
	소비자물가(%)	4.2	4.8	4.2	4.8	3.0	2.4	2.4	2.0	1.6
	실업률(%)	3.4	3.1	3.0	3.1	3.8	3.3	3.0	2.8	2.8
	경상수지(억달러)	54.9	69.0	126.7	69.0	25.6	111.4	145.6	58.2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68	3.60	3.41	3.60	3.45	3.39	2.88	2.84	2.83
	원/달러(원)	1,083.2	1,085.1	1,143.9	1,085.1	1,131.3	1,152.1	1,132.9	1,085.5	1,076.0
	코스피지수(P)	2,100.7	1,769.6	1,825.7	1,769.6	2,014.0	1,854.0	1,900.5	1,911.3	1,964.6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2012년 2/4분기 GDP성장률은 전망치며, 11월 26일은 10월, 12월 11일은 11월 수치임.

## □ 경제 이슈: 금융위기 이후 산업별 일자리 창출력 변화

### ■ 국내 고용 부진 심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청년층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비정규직, 파트타임이 늘며 불완전 취업이 증가하고 고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주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산업별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요 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분석하였다.

### ■ 산업별 성장과 일자리 창출

(정의) 산업별 성장률과 취업자 증감률을 기준으로 4가지 산업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① 성장과 고용이 평균 이상이면 '동반성장형' ② 성장은 평균 이상이나 고용이 평균 이하면 '성장위주형' ③ 성장은 평균 이하지만 고용이 평균 이상이면 '일자리위주형' ④ 성장과 고용이 평균 이하면 '동반하락형'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개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비교할 때, 가장 이상적 유형인 동반성장형은 5개에서 4개로 감소한 반면 동반하락형은 3개에서 7개로 급증하였다. 성장위주형은 2개에서 1개로, 일자리위주형은 5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다. 동반성장형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보건복지업, 운수보관업이고, 동반하락형은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 문화오락, 농림어업, 광업이다. 성장위주형은 도소매숙박업, 일자리위주형은 금융보험업, 공공행정, 사업서비스업이다.

(동반성장형)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한 업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산업은 금융위기 이전 성장위주형에서 이후에는 동반성장형으로 상향 이동하였다. 제조업은 금융위기 영향에서 벗어나 자동차, 화학, 석유정제, 전자 산업 등의 수출 호조로 생산과 고용이 크게 개선되었다. 정보통신업은 스마트기기 등 신기술의 확산, 인터넷의 빠른 성장 등으로 일자리 창출력이 개선되었다. 보건복지업은 동반성장형 산업에 지속적으로 위치하였다. 보건복지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정부의 육아 보육 지원 확대, 고령화 사회의 진전 등으로 전산업 중 고용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다.

(성장위주형) 도소매숙박업은 동반하락형에서 성장위주형으로 상향 이동하였다. 재래시장 등 소규모 상점들이 줄어들며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업종의 대형화, 새로운 사업 출현 등으로 성장성은 증가하였다.

(일자리위주형) 금융보험업은 동반성장형에서 일자리위주형으로 하향 이동하였다. 은행업은 금리 하락으로 순이자마진(NIM)이 감소하고 총대출 성장세가 둔화되어 수익기반이 약화되었다. 증권업 역시 주식 거래 규모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되었다. 공공행정과 사업서비스업은 일자리위주형에 지속적으로 위치하였다. 공공행정은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희망 근로 사업 추진으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희망 근로 사업으로 생긴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 단순 업무에 집중되어 산업의 성장세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사업서비스업은 제조업 발달과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고용이 청소, 용역 등 저임금 부문에 분포하여 성장률 증가는 미흡하였다.

(동반하락형) 부동산임대업과 교육서비스업은 일자리위주형에서 동반하락형으로 추락하였다. 부동산임대업은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부동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취업자 증감률도 하락하였다. 교육서비스업은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과 가구의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성장률과 고용 창출력이 하락 하였다. 건설업은 동반하락형에 지속적으로 위치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SOC 예산축소로 인한 토목부문 부진과 건축 부문 침체 장기화로 건설업의 성장률이 크게 감소하고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었다.

## ■ 정책적 시사점

첫째,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역량과 성장 지속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분야의 창업지원 확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의 발굴과 육성, 신산업 분야의 창업촉진 지원 등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사업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야 한다. 일자리가 늘고 있는 저부가 종사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대형화, 고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성장 활력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도소매숙박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도소매숙박업 중 전업희망 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기술습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재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자영업자들이 창업과 전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현재 단순근로 임시직 중심의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제연구본부 김천구 선임연구원 (02-2072-6211, ck1009@hri.co.kr)

□ 동향: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 中 요약  
(12/10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요약)

○ 인구고령화로 의료이용량과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진료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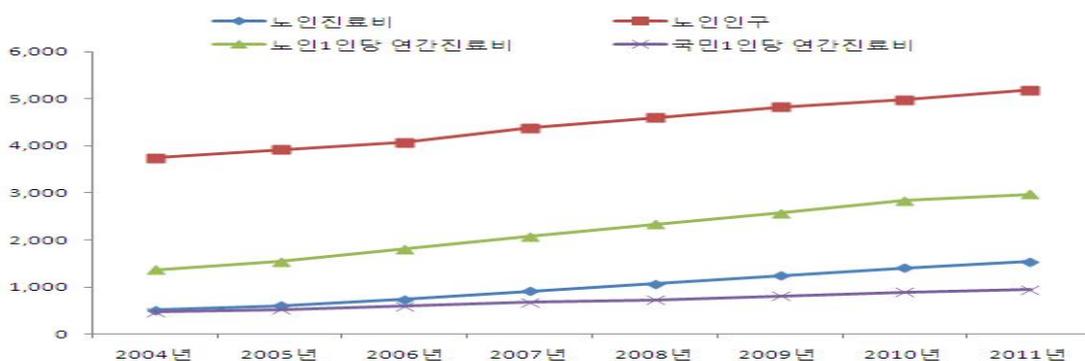
- 2011년 65세이상 노인인구는 5,184천명으로 전체대상자의 10.5%
-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2011년 노인진료비는 15조 3,893억원으로 2004년과 비교하면 3배 증가
- 전년대비 8.9%증가(건강보험 전체진료비 증가율 6.0%)

구 분	단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노인진료비	억원	51,364	60,731	73,504	91,190	107,371	124,236	141,350	153,893
(증가율)	(%)	(16.7)	(18.2)	(21.0)	(24.1)	(17.7)	(15.7)	(13.8)	(8.9)
노인진료비 구성비율	%	22.9	24.4	25.9	28.2	30.8	31.6	32.4	33.3
노인인구	천명	3,748	3,919	4,073	4,387	4,600	4,826	4,979	5,184
(구성비)	(%)	(7.9)	(8.3)	(8.6)	(9.2)	(9.6)	(9.9)	(10.2)	(10.5)
노인1인당 연간진료비	천원	1,363	1,545	1,805	2,079	2,334	2,574	2,839	2,968
국민1인당 연간진료비	천원	476	524	599	679	726	813	895	947

주) 1. 지급기준이며, 약국포함

2. 산출기준 : 노인1인당 연간진료비 = 진료비 /연도말적용인구  
국민1인당 연간진료비 = 진료비 /연평균적용인구

[그림]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추이



## □ 이슈 : 복합금융상품도 알아

최근 정보기술(IT)의 발달과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금융혁신이 거듭되면서 새로운 복합금융상품이 끊임없이 발달되고 있다. 예컨대 은행에서도 다양한 자본시장 상품의 속성을 결합한 저축상품들이 많이 있으며, 증권회사 등에서도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을 가미한 투자금융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두 시장의 성격을 모두 포함한 이른바 복합금융상품 시대이다.

따라서 저축은 이제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순수 예금상품만을 통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며, 증권회사 등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들의 대부분은 아직 금융선진국에서 도입된 영어 약자로 표기되어 있고, 아직 우리에게 생소하면서 헛갈리는 면이 많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대에서 똑똑한 금융생활을 위해서 그런 금융상품 용어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 여기서는 수많은 복합금융상품 중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직접금융시장(자본시장) vs 간접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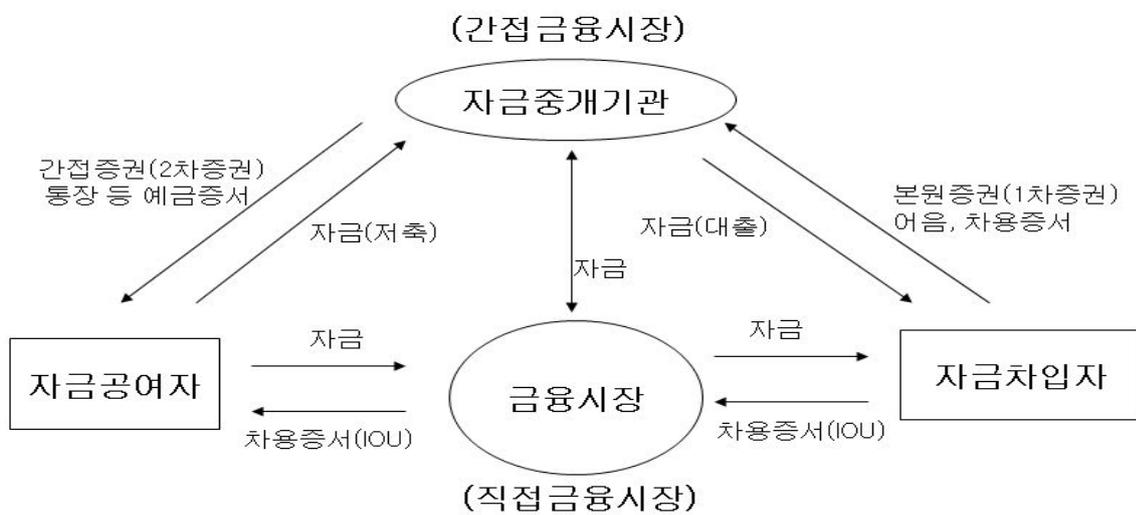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은 여러 측면에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구분이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이다.

먼저 직접금융시장이란 자금 공여자로부터 자금 차입자에게 증권 발행을 통하여 직접 자금이 이전되는 시장을 일컫는데, 한편으로 자본시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직접금융시장에서의 대표적인 상품은 채권과 주식인데, 차입자는 채권과 주식 발행하고, 자금 공여자는 이에 대해 투자함으로써 자금이전이 이루어진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너무나 많은 자금 공여자와 차입자가 있기 때문에 직접 자금이 전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은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 공여자와 자금 차입자가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간접금융시장은 자금 공여자의 자금이 자금 차입자에게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하여 이전되는 시장을 말한다. 간접금융시장의 대표적인 상품이 예금이다, 개인들이 직접금융시장의 상품

에 투자할 경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변호사 비용, 수수료 등 거래비용 등이 매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은행 등의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간접금융을 선택한다. 개인이 은행 등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에 맡겼다는 증서(통장 등)를 주고, 은행은 그 돈을 이용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가계에 대출을 하거나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고객에게 이자라는 형식으로 되돌려 준다.

< 직접금융시장 vs 간접금융시장 >



① MMF와 MMDA

MMF와 MMDA는 각각 증권사와 은행이 취급하는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이다. 먼저 수시입출금식 단기금융펀드(MMF: money market fund)는 자산운용사가 고객의 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뒤 이를 단기채권과 CP(기업어음) 등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에 투자해 그 결과를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이다. 간단히 말해 일종의 초단기 채권형 펀드로 수시로 돈을 맡길 수 있고 별도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이 돈을 찾을 수 있어 단기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금리도 은행의 보통예금보다 높고 안정적이다. 증권사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주식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위한 대기성 자금으로 많이 이용된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이 MMF로 대거 몰리는 경향이 있다.

반면 시장금리부수시입출식 예금(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은 MMF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의 단기 고금리 저축성 예금이다. 시장금리를 지급하지만, 인출과 이체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불예금의 수시 입출 및 결제기능과 저축성 예금의 고금리가 결합된 상품이라 생각할 수 있다. MMF는 본질적으로 투자수익을 되돌려주는 상품인 반면 MMDA는 투자수익에 관계없이 은행이 결정한 계약 금리를 지급하는 예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은행상품이지만 만기 이전에 찾더라도 중도해지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는 이점도 있다. MMDA의 금리는 금액별로 차등되어 있다. 금액이 클수록 고금리를 받는다. 보통 5백만 원 이하일 때는 저축예금보다 금리가 낮다. 따라서 이 상품은 5백만 원 이상의 목돈을 1개월 이내의 초단기로 운용할 때 유리하다.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 대금을 자동 이체하는 결제통장으로도 유익하다. 가입기간과 한도에 제한이 없고 거래실적이 좋으면 마이너스 대출도 받을 수 있다.

## ② CD와 CP

CD 역시 은행이 취급하는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으로서 가끔 CP와 많이 혼동이 된다. 먼저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는 말 그대로 양도 가능한 정기예금증서로서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해 발행하는 일종의 잔고증명서이다. 소지인에게 원금 및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확정이자 증권이며, 만기일 이전에 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요 단기금융수단이다. 무기명으로서 중도해약이 불가능하나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어 현금화가 용이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6월에 재도입되어 1990년대에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CD)는 은행들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발행하며, 발행된 CD의 유통수익률은 대표적인 단기 지표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예금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아 부유층의 자산증식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반면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s)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단기자금 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약속)어음이다. 상거래와 관계없이 발행되는 유통어음이지만 법률적으로 상업어음과 동일하다. 그 취급기관은 도입 초기 투자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의 전신으로 지금은 거의 사라진 금융기관)에 국한되었으나 점차 증권사, 은행, 은행신탁, 투신사, 보험사 및 여신전문기관 등까지 확대되어 이제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이를 취급하고 있다.

## CD와 불법자금

CD는 무기명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처음 발행할 때와 마지막에 돈으로 바꿀 때만 실명이 밝혀지고 중간에 유통될 때에는 누가 구입했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현금이나 수표처럼 부피가 크지 않고 만기 전에 시중에 팔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CD는 뇌물용이나 비자금용 등 자금의 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불법선거 자금으로 100억원의 CD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불법대선자금으로 CD가 뇌물로 제공되면서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06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이 보유한 CD에 대해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등록제 하에서는 CD매매 당사자의 명의 변경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CD의 무기명 특성은 없어지며, CD 발행과 매매가 실물증서 없이 전산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무기명으로 거래되면서 종종 불법자금이나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던 일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또 과거 금융기관 직원이 CD 증서를 위조하는 식으로 고객 돈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간혹 발생하곤 했는데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이런 사고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 ③ ELS, ELD 그리고 ELW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에서 원금보장을 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가능하다는 용어가 매우 유사한 금융상품이 있다. 이들 상품들은 투자원금을 보장하면서 주가 또는 주가지수(KOSPI 200)와 연계하여 움직이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직접시장과 간접시장을 복합한 금융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주가지수 연계 상품은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약간씩 다른 모습으로 판매되고 있다.

여기에는 은행이 판매하는 주가연계예금(ELD: equity-linked deposits)의 경우 투자원금의 95%를 정기예금, 5%를 주가지수 옵션에 투자하며,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어 원금보장이 완벽한 상품이

다.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주가연계증권(ELS: equity-linked securities)은 투자원금의 95%를 국공채 및 우량 금융채, 5%를 주가지수 옵션에 투자하며, 증권사 자체 신용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그리고 투신사(자산운용사)가 판매하는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linked warrants)은 투자원금의 100%를 국공채에 투자하고, 이자수익으로 옵션이나 주식워런트에 투자하며, 투신사 자체 신용으로 원금 보장하는 상품이다.

## 주가지수옵션과 위험성

원래 옵션은 일정한 가격으로 지정된 주가지수를 사거나(call option) 팔(put option)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이다. 이중 주가지수옵션(options)은 미래의 특정시점에 거래될 주가를 미리 고정시킴으로써 주가 변화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된 파생금융상품이다.

우리나라의 주가지수옵션은 KOSPI 200 지수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대가(옵션가격 또는 프리미엄)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하며, 매수자는 권리를 취득한 만큼 자신에게 불리하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반대로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고 권리를 팔았기 때문에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국내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시장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단일 거래량 면에서 세계 제1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고 있다는 말이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목적의 거래가 지속된다면 전적으로 미래 주가의 예측에 의존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예측이 맞을 때에는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엄청난 손실이 따른다. 또한 일반 개인들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금융기관과의 게임을 해야 하는데, 반복적으로 거래하게 될 경우 대부분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 ④ RP

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e agreements)란 일정기간이 지난 뒤 다시 사주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을 말하는데, 보통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취급하는 RP를 말한다. 시중자금이 많이 풀렸다고 판단되면 RP를 은행에 매각하여 통화를 흡수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RP를 재매입하여 통화를 공급한다. 즉, 한국은행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및 투신사 등 금융기관과의 RP매도(매수) 거래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단기자금을 흡수(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RP를 증권사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증권회사 RP(환매조건부상품)는 일정금리에 다시 되사주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확정금리형 수신상품이다. RP를 판매하는 증권사는 자금을 조달·운용할 수 있고, RP를 사는 투자자는 확정금리를 받게 되는 장점이 있다. 국공채, 우량 회사채, 통안채 등 안전하고 거래가 잘되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RP상품을 판매한다. 증권사는 우량 채권을 손실을 보지 않는 적절한 시장가격으로 팔고 사면서 운용해 만기 때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준다.

### ⑤ CMA

어음관리계좌 또는 종합자산관리계정이라고도 하는 CMA(cash management account)는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RP나 양도성예금증서(CD)·국공채 등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종합금융회사의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이었으나 2005년 6월부터 증권회사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MA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하루만 맡겨도 연 3%대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과금과 계좌이체 등 결제계좌로도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CMA 카드를 통해 은행 현금카드처럼 자동인출기에서 출금할 수 있는 편리함도 있다. 뿐만 아니라 주식청약자격과 포인트 적립, 수익증권 매입기능, 주식·채권 매입기능도 있으며, CMA에 있는 자금으로 펀드매매도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재테크 차원에서 월급통장을 이자가 거의 없는 은행저축예금에서 증권회사의 CMA로 바꾸고 있다.

### ⑥ Wrap Account

최근 증권사들이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랩어카운트(wrap account)라는 것은 주식, 채권, 부동산

산등 여러 종류의 자산운용 관련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고객의 기호에 맞게 제공하는 맞춤형의 '자산종합관리계좌'를 일컫는다. Wrap(포장하다)과 account(계좌)의 합성어로서 고객이 맡긴 재산에 대해 자산구성부터 운용, 투자자문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종합서비스로서 선진국 투자은행들의 일반적인 영업형태이다.

고객이 위탁한 재산에 대해 증권회사의 금융자산관리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적절한 운용 배분과 투자종목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 때 주식 등을 사고팔 때 마다 수수료(commission)를 받는 위탁계좌와 달리 고객이 맡긴 자산을 기준으로 일정률의 수수료(fee)를 내는 상품이다.

이에는 보통 컨설턴트(자문형)랩과 뮤추얼(일임형)랩으로 구분된다. 컨설턴트랩은 증권사가 주식투자 등을 자문하거나 투자자문을 골라주는 것이며, 뮤추얼(일임형)랩은 뮤추얼펀드나 수익증권을 증권사가 골라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2월 자문형랩이, 2003년 10월부터 일임형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가입 금액은 대부분 적지 않은 금액(예컨대 개인 5000만 원 이상, 법인 1억 원 이상 등)으로 제한한다. 수수료는 연간 1~3%인데, 국내 주식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데이트레이딩(당일치기) 등으로 매매 회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별도의 위탁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 commission vs fee

그동안 커미션과 피의 개념을 거의 구분 없이 사용하였지만 점점 자산관리 기능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두 개념에 대한 구분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커미션(commission)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우리가 거래할 때 중개인(broker)에게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는 커미션에 해당한다. 반면 거래 횟수에 관계없이 고객의 위탁잔고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피(fee)의 개념이다. 금융기관에 맡겨 놓는 자신의 위탁 잔고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만일 금융기관이 위탁된 금액을 투자전략상 저금리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어도 위탁 잔고에 따라 일정한 피를 지급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 (02-2072-6216, dbpark@h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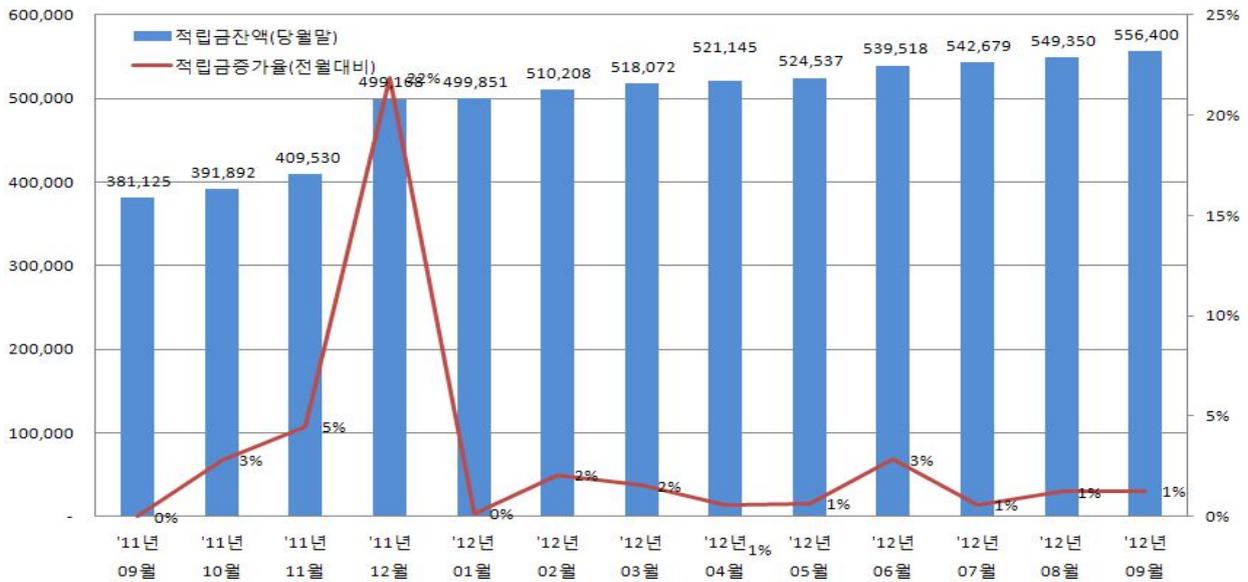
□ 퇴직연금통계 (2012년 9월말)

○ 적립금 규모

- 2012년 9월 말 현재 적립금액은 55 조 6,400 억원으로 전분기 ('12.6 월말: 53 조 9,518 억원) 보다 1 조 6,882 억원 (3.0%) 증가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

(단위 : 억원, %)



자료: 금융감독원

○ 도입사업장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85,689 개소로 전분기(167,460 개소) 대비 10.9% 증가
  - 총 사업장(1,519,850개소)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12.2%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단위: 개소, %)

구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이상	합계
(A)도입 사업장수	111,218	48,407	19,282	4,938	814	1,030	185,689
(B)전체 사업장수	1,273,047	178,396	54,720	10,969	1,425	1,293	1,519,850
도입비율 (A/B, %)	8.7	27.1	35.2	45.0	57.1	79.7	12.2

자료: 금융감독원

□ 洗心錄

□ 새로운 것을 해보자

마크 네포는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이라는 저서에서, “가슴속에 꾀꾀 숨겨놓은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나보다 더 넓은 공간 속으로 비상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 개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더 넓은 공간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파울로 코엘료의 「알레프」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나는 깨닫는다.

내가 항상 같은 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내가 원하는 곳에

결코 도달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사막과 도시와 산과 길 위에 있을 때만

내 영혼과 대화할 수 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여 있는 물은 혼탁해진다. 항상 사용하는 쇠붙이는 녹이 슬지 않지만 방치되어 있는 철 조각은 녹이 슨다. 우리도 제한된 공간 혹은 좁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몸과 마음이 퇴보하게 된다. 두렵지만 새로운 것, 새로운 생각,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자. 새로운 취미를 가진다거나 전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 보는 것이다. 새로운 경험 속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한다면 그 또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진부한 나의 모습은 과거로 던져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자.

信言不美 美言不信

믿음이 있는 말은 꾸밈이 없고, 번드르르한 말은 미덥지 못하다.

老子, <道德經>

#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영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